

콩 콩 콩 콩나물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지역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록이기도 하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소중하게 포장되어 책이 되었다. 우리 집의 작은 화분이 책에 실리는가 하면, 어린 시절의 빛바랜 가족사진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다시금 생명을 얻기도 했다.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눈물을 짓고, 생각에 잠긴 흔적이 책으로 묶였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는 다만 지나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봉사와 베품의 이야기는 현재형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미래형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낳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이가 손잡아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천 개의 손을 함께 잡는 작업이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콩나물 봉사단

공숙자
김은숙
김선화
김은주
김희숙
남정자
송혜숙
송영숙
양선자
유기미자
이미형
이영자
장귀순
정귀자



목차

남산정 복지관 콩나물 봉사단 이야기	4
콩나물 키우기	10
맛있는 콩나물 레시피	46

남산정 복지관 콩나물 봉사단 이야기



콩나물 봉사단 이야기는 그 역사가 긴 만큼
이야기에 남산정의 변천 과정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처음 콩나물 봉사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특별한일이 아니지만 사누고 조를해서 밥이 나오지 않는데,
저걸 남산정 사람들 공들여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러 행거의 유래인데,
그때를 보면 당시 행거 사설 행이 나왔어 그랬다.
콩나물이라는 음식으로,
특별한일이 아니지만 사누고 조를해서 밥이 나오지 않는데,
저걸 남산정 사람들 공들여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러 행거의 유래인데,
그때를 보면 당시 행거 사설 행이 나왔어 그랬다.
콩나물이라는 음식으로,
특별한일이 아니지만 사누고 조를해서 밥이 나오지 않는데,
저걸 남산정 사람들 공들여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러 행거의 유래인데,
그때를 보면 당시 행거 사설 행이 나왔어 그랬다.